

유영준(劉英俊)의 생애와 활동: 신여성 의사에서 좌익 여성운동 지도자까지

이 희 재*

목 차

- I. 머리말
- II. 유영준의 출신과 해외 유학
- III. 신여성 의사로서의 의료활동
- IV.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
- V. 해방 후 여성운동과 좌익·북한 정치활동
- VI. 맺음말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일제시기 신여성 의사이자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였고 해방 후에는 여성계의 지도자로서 좌익의 중진으로 자리매김한 유영준(劉英俊, 1889-1972)의 총체적인 생애를 조명함으로써 그 역사적 위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유영준은 하층민 출신이었으나 근대적 교육과 해외 유학을 통하여 여성 엘리트로 성장하였다. 식민지 조선에 귀국한 후 유학을 통하여 얻은 지식, 경험, 가치관, 인맥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대중에게 의료를 행하여 신여성 의사로서 위상을 떨쳤으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근우회와 여성의학교 설립운동에 참여했다.

그동안 의료활동과 사회운동을 펼치며 쌓은 명망을 기반으로 해방 후 좌익 여성운동의 지도자로 발돋움했다. 1945년 8월 해방되자마자 좌우익을 망라한 여성 대중의

* 李熺裁,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dearest.hj19@gmail.com

투고일: 2022. 04. 23. 심사완료일: 2022. 05. 30. 게재확정일: 2022. 0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1.42..313>

지도자로 공인되었고, 남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좌익 남성 정치인들과 연대하여 열렬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1948년 월북 이후로는 북한 정치계의 중역을 담당하였다.

유영준은 여성을 억압하였던 수많은 시대적 제약을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한미한 출신으로 태어나 신여성 의사를 거쳐 여성 대중을 선도하는 좌익 정치인까지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측면을 관통하는 그녀의 생애와 활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 유영준, 신여성, 여성 의사, 사회주의 여성운동, 근우회, 좌익, 건국부녀동맹, 조선부녀총동맹, 북한, 여성 정치인

I. 머리말

유영준(劉英俊, 1889-1972)은 일제시기 여성 의사이자 해방 후 좌익 계열의 여성 정치인이다(그림 1).¹⁾ 비록 태생은 빈한하였으나 근대 교육과 유학을 통하여 여성 엘리트로 성장하였고 조선에 귀국하여 여성 의사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정력을 다했다. 이러한 면모는 당시 언론과 지식인들의 큰 주목을 받아 그녀의 이름은 조선 전역에 알려졌다. 해방 후에는 기존의 명성에 힘입어 좌익 정치인사로 이름을 얻었다.

[그림 1] 유영준(劉英俊)



출전: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 17, 1931.

1) 근대 신문잡지나 해방 후 북한의 신문에서는 ‘류영준’으로도 쓰고 있다. 그러나 1925년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선교사가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그녀를 “Dr. Yew”라고 지칭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영준’으로 통일하였다. Alice R. Appenzeller, “Changes at Ewha Haktang,” *27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Y.M.C.A. Press, 1925, p.47.

유영준의 삶은 한국 근현대 여성사·의료사·정치사 등을 관통하여 유의미한 궤적을 남겼다.

지금까지는 유영준의 일생 가운데 일부만이 역사적으로 조명받은 바 있다.²⁾ 선행연구를 통해 유영준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였고 그녀의 입지는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위에 안착했다. 그러나 유사한 이력·이념을 가진 타 여성들과 묶여서 연구되는 차원에 그쳤기에, 전반적인 생애 차원에서 유영준 개인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으며 파편적인 행적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녀의 일생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즉 유영준의 업적과 역사적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유영준의 일생과 활동을 총체적으로 복원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유영준은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태생적·시대적 한계를 돌파하여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 ‘의사’이자 해방정국의 ‘좌익 정치인’으로서 당당히 이름을 남긴 ‘여성’이었다. 이처럼 유영준의 삶이 한국 근현대사의 다양한 측면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생애 전반을 응시하고 조명함으로써 그녀의 위상을 역사적 맥락 속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II장에서는 유영준의 유년기와 유학시절을 살펴본다. 한미한 출신이

-
- 2) 유영준의 일본 유학시기를 살펴본 연구로는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 유학생 목록」, 『여성문학연구』 3, 2000;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현실인식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9, 2009. 근우회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여성계몽활동을 소개한 연구로는 김경일, 「1920·19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II』,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이승희, 『근대사 속의 한국여성』, 국학자료원, 2014;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의료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주양자 외, 「우리나라 근·현대여성사에서 여의사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의사들의 활동」, 『코기토』 80, 2016. 해방 후 좌익 정치활동을 언급한 연구로는 이승희, 「미군정기 좌익 여성운동 연구: ‘조선부녀총동맹’을 중심으로」, 『여성운동과 정치이론』, 녹두, 1994;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문지현, 「해방 후 좌익계 여성운동의 방향과 한계: 잡지 『여성공론(女性公論)』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54, 2017.

었으나 자신의 능력과 인맥을 축적하면서 여성 엘리트로 성장한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III장은 조선으로 귀국한 이후부터 일제 말까지의 행적을 확인한다. 유영준이 의료 및 사회활동을 병행하며 식민지 조선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은 해방 후 본격화된 유영준의 정치활동을 그린다. 그동안의 경험과 신망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으며, 여성계의 선구자이자 좌익의 중진으로 도약하였던 동태를 추적하고자 한다.

자료는 일제시기 및 해방 이후 신문·잡지와 함께 조선총독부 문서, 경성지방방법원 검사심문조서, 선교사 기록, 개인 서한 등을 활용한다. 해방 후 활동은 소련군정문서와 스티코프 일기, 북한노획문서 신문자료, 미국립기록관리청(NARA)의 RG 554 문서 등을 참고한다.

II. 유영준의 출신과 해외 유학

유영준은 1889년 2월 2일³⁾ 평양의 하층민 출신으로 태어났다. 그녀는 본래 기생 혹은 궁녀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⁴⁾ 근거 자료나 유영준 본인의 회고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양갓집 규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는 평양의 여자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상경하여 정신여학교에 진학했다.⁵⁾ 재학 중 청년들이 하루빨리 문명개화되어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글을 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⁶⁾

3)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30, Declarations of Political Parties Folder,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5호에 대한 조선부녀총동맹의 선언서(1946.4.27.)」.

4) 「女子教育의 先驅者, 손정규 양은 여자고보 교유로, 유영준 양은 병으로 중도 퇴학, 『매일신보』, 1922.7.20.; 김수경, 「삼천리 강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174쪽.

5) 「名士諸氏 만나기前 생각과 맞난 後의 印象 - 劉英俊氏, 『별건곤』 11, 1928, 68-69쪽.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북경으로 건너가 기독교 선교사가 설립한 여학교인 모정서원(慕貞書院)에 입학했다. 유영준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안창호와 교류했다. 1911년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안창호에게 조성환·백영엽·이용근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소식을 전하는⁷⁾ 임무를 맡았다.

유영준은 모정서원 졸업 후 잠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일본 도쿄로 이동했다. 1915년 안창호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내 1918년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배움을 계속했다.⁸⁾ 이때 그녀와 친분이 있던 로제타 홀(Rosetta S. Hall)이 도쿄에서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⁹⁾

일본유학 중에는 다른 유학생들과 연대하여 독립운동과 계몽활동을 펼쳤다. 그 시작은 1919년 2·8독립선언과 연관되어 있었다. 1919년 1월 6일 재일유학생들은 도쿄 간다(神田)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2월 8일에 독립운동을 실시하기로 협의했다.¹⁰⁾ 유영준은 여자친목회(女子親睦會) 회원으로서 다른 여자유학생들과 2·8독립선언을 모의하고 참여했다.¹¹⁾ 이후

6) 「녀학도 류영준의 녀자지남찬송」, 『대한매일신보』, 1908.7.29.

7) 「劉英俊 → 安昌浩 (北京: 1911.8.11.)」, 『島山安昌浩全集』, 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 2000, 301-303쪽.

8) 「劉英俊 → 安昌浩 (北京: 1915.6.7.)」, 『島山安昌浩全集』, 島山安昌浩先生記念事業會, 2000, 304-305쪽; 도쿄여의전의 수업연한은 예과 1년, 본과 4년으로 총 5년제였다. 유영준은 1923년 12월에 졸업하였으므로, 재학기간을 역순으로 계산하면 1918년 4월에 입학한 셈이 된다.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3年』,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1928, 50·75쪽.

9) Alice R. Appenzeller, op.cit., p.47.

10)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 - 黃愛施德 訊問調書(第2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권 三一運動 IV』, 國史편찬위원회, 1988. http://db.history.go.kr/id/hd_014_0010_0220.

11) 여자친목회는 재일여자유학생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다. 1918년 10월 유영준은 나혜석의 뒤를 이어 총무로 선정되었다. 「消息」, 『여자계』 2, 1918.

3·1운동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¹²⁾ 학제상 12월부터 3월 말까지 동계방학 기간이므로 조선에서의 독립운동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 1월에는 교육·지식 향상을 목표로한 여자학흥회(女子學興會)가 조직되었다. 초대 회장은 유영준, 부회장은 도쿄여의전 선배 현덕신이 맡았다.¹³⁾ 유영준은 기관지인 『여자계』의 제4호부터 편집·발행인으로서 재일여자유학생 활동의 중심축을 담당했다.¹⁴⁾ 그녀는 『여자계』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소외계층 구제 활동을 역설하는 등¹⁵⁾ 일본 유학중부터 여성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¹⁶⁾

이러한 유영준의 지향은 당시의 세계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 풍조와도 맞닿아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여성 해방모성 보호의 비전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또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권 신장에 대한 국제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른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유행은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에 걸쳐 일본과 조선에까지 파급되었다.¹⁷⁾ 이 시기 일본 유학 중이었던 유영준도 국제적인 사회주의 여성운동 동향을 접하고 감화되었으리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유영준은 비단 여성운동의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 자체에도 심취해 있었다. 기실 그녀는 일본 유학시절 재일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했다. 유영

75쪽.

12) 김오성, 『指導者 群像』, 수영사, 1946(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687쪽); 『류영준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로동신문』, 1972. 9.29.

13) 「여자학흥회 조직」, 『매일신보』, 1920.4.1.

14) 백옥경, 앞의 논문, 2009, 13-17쪽.

15) 유영준, 「半島靑年女子에게」, 『여자계』 5, 1920.

16) 백옥경, 앞의 논문, 2009, 22-23쪽.

17) 최은경, 「러시아혁명과 일제강점기 조선 모성 보호의 전개」, 『여성문학연구』 42, 2017, 105-110쪽.

준은 도쿄에서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 일월회(一月會)의 회원이었다.¹⁸⁾ 일월회는 제일유학생 사회주의 운동단체 북성회(北星會)의 일부 인원이 1925년 1월 재조직한 단체였다. 유영준은 1925년 1월 1일부터 경성에서 근무하면서 1월 중순 도쿄에서 일월회 창립 기념 대강연회에 참여했다.¹⁹⁾ 이로 보아 1925년 이전부터 제일 사회주의자들에게 동조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조선 귀국과 관계없이 일월회 참여를 결정한 듯하다. 특히 일월회를 조직한 안광천과 ‘의사’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므로 그가 도쿄로 건너와 북성회에 가입한 1924년부터는 친목을 쌓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유영준은 자택에 여자학흥회 회원 유력자들을 회집시켜 조선 전국 순회강연을 결의했다.²⁰⁾ 1921년 유영준, 김선, 박순천은 8월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초까지 전국 각지로 이동하며 대중에게 근대 지식을 강연했다.²¹⁾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영준은 “여류정객으로 이름을 동양 3국의 수도에 날리”면서 “여자유학생 중에서 제일 유망”한 신여성으로 자리매김했다.²²⁾

1922년 폐결핵으로 잠시 귀국하였으나²³⁾ 1923년 12월 길정희, 한소제 등과 함께 도쿄여의전을 무사히 졸업했다.²⁴⁾ 졸업 후 고향에 잠시 들른

18) 「時局을標榜한覆面強盜 正體는現職巡查」, 『동아일보』, 1925.1.16. 동 기사를 비롯하여 이후 일월회 활동 소식을 전한 기사들에서는 ‘劉榮俊’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강연 주제와 RG 554, Box No.78, Party Classifications Folder 중 남로당 합당 관련하여 각 과별의 인물을 분류한 문건을 참고할 때 동일인물이 확실해 보인다.

19) 「劉英俊嬢歸國」, 『동아일보』, 1925.1.6.; 「一月會講演經過」, 『동아일보』, 1925.1.24.

20) 「東京에서 留學하는 朝鮮人 女學生의 巡回講演」, 『매일신보』, 1920.7.13.

21) 「女學生의講演團」, 『동아일보』, 1921.8.8.; 「講壇上의 新女子」, 『동아일보』, 1921.9.8.; 「東京女子講演會着發」, 『동아일보』, 1921.9.8.

22) 「女子教育의 先驅者」, 『매일신보』, 1922.7.20.; 「붉은 戀愛의 主人公들」, 『삼천리』, 17, 1931.

23) 「女子教育의 先驅者, 손정규 양은 여자고보 교유로, 유영준 양은 병으로 중도 퇴학」, 『매일신보』, 1922.7.20.

24)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앞의 책, 1928, 132-133쪽.

소식이 신문에 실릴 만큼 그녀는 이미 조선의 유명 인사였다.²⁵⁾ 유영준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약 1년간 실습하면서 고등여학교 졸업장을 얻고자 군마현의 아가쓰마고등여학교(吾妻高等女学校)에 진학했다.²⁶⁾ 1924년 2월 부터 미쓰이자선병원(三井慈善病院)에서 1개월 정도 실습하다가 3월 상순 적십자병원으로 옮겼다.²⁷⁾ 1924년 말 실습을 마치고 무려 14년 만에 조선으로 완전히 귀국했다.

한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정보원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는 유영준을 “재일여자유학생의 영수(領袖)”로 칭하며 사이토에게 그녀의 졸업 을 알렸다.²⁸⁾ 그의 권유에 따라 사이토는 도쿄 및 경성에서 유영준과 두 차례 만났다.²⁹⁾ 이는 유영준이 조·일 양국에서 유명한 여자유학생이었고, ‘요시찰 조선인’으로서 총독부의 주시 대상이었음을 반증한다.³⁰⁾

이처럼 유영준은 근대 교육과 유학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의 엘리트 여성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특히 일본유학은 사회주의와 이에 기반한 여성운동에 감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다년간의 유학경험은 하층민 여성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삶으로 그녀를 추동시켰다. 이 시기 체득한 지식·경험·가치관은 유영준의 일생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함께 어울린 유학생들은 귀국 후 행보의 동반자가 되었다.

25) 「地方人事消息」, 『조선일보』, 1923.12.8.

26) 「조선녀성이가진여러직업【一】」, 『조선일보』, 1926.5.9.

27) 古橋卓四郎, 「在京朝鮮人狀況」,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一般ノ部 二』, 1924.5.31.

28) 「二八三、阿部充家」, 『齋藤實關係文書目録 書翰の部 1』, 国立国会図書館, 1998. 아베는 적십자병원 실습 종료 시점을 졸업이라고 오인했다.

29)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齋藤實文書 書簡の部: 유영준」(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98791), 연도미상(1925년 추정).

30) 「要視察朝鮮人種別姓名表 → 要視察人朝鮮人名簿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十一』, 1920.7.8.

Ⅲ. 신여성 의사로서의 의료활동

1. 여성병원 진료와 운영

유영준은 1925년 1월 1일부터 동대문 부인병원과 태화여자관(泰和女子館)의 진찰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이화학당 교의를 겸임했다.³¹⁾ 당시 병원에는 일본 유학 시 도움을 준 홀이 원장으로 있었고, 도쿄여의전 선배 헌덕신도 근무 중이었다. 귀국 직후 근무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형성한 인간관계가 중요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요하게 활약한 곳은 태화진찰소였다. 1924년 동대문 부인병원 간호사 로젠버거(Elma T. Rosenberger)와 동 병원의 간호원양성소 졸업간호사 한신광은 태화여자관에 진찰소를 개원하여 공중보건사업을 시행했다. 1925년부터 유영준은 진찰소 주치의로서 매일 2-3시간씩 유소아·여성들을 진찰했다.³²⁾ 이후 아동 대상의 건강진단 및 위생강연에도 적극 참여했다.³³⁾ 이 시기 유영준의 모자보건활동은 일본유학을 통해 수용한 사회주의적 여성운동 기조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녀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어 진료한 시간은 실질적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 1925년 미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의 연례보고서에 명시된 병원 소속 의료진은 안수경, 헌덕신, 김복신뿐이었던 점으로 보아³⁴⁾ 동대문 부인병원의 근무기간은 최대 1년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태화진찰소에서의 진료

31) 「劉英俊嬢歸國」, 『동아일보』, 1925.1.6.; Alice R. Appenzeller, op.cit., p.47.

32) 「태화여자관확장」, 『조선일보』, 1925.3.30.

33) 「태화진찰소의 어린이건강진단」, 『조선일보』, 1925.5.15.; 「소아의건강진단」, 『조선일보』, 1925.5.18.; 「전조선덕으로 열리는 건강강습회」, 『조선일보』, 1926.4.26.; 「건강후원회의 어린이건강진찰」, 『조선일보』, 1926.5.6.; 「태화건강후원회의 현상아동건강진단」, 『조선일보』, 1927.6.1.

34) "Appointment," *27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Y.M.C.A. Press, 1925, p.103.

는 매일 짧게 이루어졌다. 한 병원에서 종일 상주하며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기에 후술할 다방면의 활동들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었다.

유영준은 여성 의사로서 동대문 부인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 대표적으로 동대문 부인병원 폐지반대연맹회를 들 수 있다. 1925년 미 감리교 선교회가 경비 긴축을 위하여 동대문 부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합병을 결정하자, 경성 내 여성 의사, 간호사, 약제사 등이 결집하여 폐지반대연맹회를 조직했다. 유영준은 연맹회 교섭위원 겸 결의문 작성위원으로 선정되었고 병원 폐지 및 경영권 이전 반대의 뜻을 직접 표명했다.³⁵⁾ 이러한 결과 세브란스와의 합병 계획은 무산되었다.

또한 동 병원의 간호학생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다. 1926년 1월 간호원양성소장 메임 로저스(Mayme M. Rogers)가 간호원 홍선희에게 퇴학을 명령한 일로 홍선희가 음독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³⁶⁾ 로저스의 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회에서 복직이 결정되자 유영준은 안수경, 현덕신, 김순복과 함께 이사회를 비판하는 질의서를 제출하고 노블(William A. Noble) 이사회장을 접견했다. 이사회가 복직 결정을 고수한 데 대하여 그녀는 조선인을 모욕·멸시하는 선교사들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했다.³⁷⁾

이처럼 유영준은 당대의 여성 엘리트로서 진료를 넘어서 여성병원 운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는 동대문 부인병원을 조선 여성계의 발전을 표상하는 척도로 인식했다. 따라서 동 병원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선 여성계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자발적인 해결에 나섰다. 선교사들과의 대치 상황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

35) 「合同形式으로 廢止되는婦人病院」, 『조선일보』, 1925.5.20.; 「東大門婦人病院 廢止反對聯盟會」, 『조선일보』, 1925.5.22.

36) 「員長の苛酷으로 看護婦自殺」, 『동아일보』, 1926.1.28.

37) 「理事會當局에 質疑書를提出」, 『조선일보』, 1926.3.8.; 「『宣教師의非道德的行爲를 摘發해敎人に配付』」, 『조선일보』, 1926.3.10.; 「問題의看護員養成所長 理事會決議로 突然復職」, 『동아일보』, 1926.3.5.

하는 바를 관찰시킨 점은 유영준의 여성 엘리트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2. 의료 구호반 및 위생 계몽 활동

유영준은 원외에서도 의료활동을 펼치며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25년 여름 경성에서 홍수 피해가 극심하자 구호반 의사로서 활동했다. 그녀는 태화진찰소 간호사 김성학, 경성기독교청년회 유각경, 조선일보 기자 최은희와 대홍수 이재민 부인구호반을 조직하고 피난민에 대한 의약 시료를 담당했다.³⁸⁾ 이들은 이촌동과 독섬 방면에서 62명의 환자들을 치료했다.³⁹⁾

1926년 6·10만세운동 때는 시위 참가 여성들을 위해 부인봉도단(婦人奉悼團) 구호반 의사로 참여했다. 순종의 인산일이 다가오자 조선일보사는 여성 독자들의 사전신청을 받아 봉도단을 조직하고, 경찰당국과 교섭하여 동대문 부인병원 정문 안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병원 안에는 유영준을 비롯한 여성 의료진이 위생구호반을 꾸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⁴⁰⁾ 병원 부근의 5차 시위는 조선공산당 산하 선동원에 의하여 이전보다 완강히 전개되었고, 일제의 폭력적 대응으로 인해 중경상자가 다수 발생했다.⁴¹⁾ 구호반은 여성들의 안위 보호를 넘어서 중경상을 입은 시위대에 대한 의료지원에 이바지했다.

한편 위생·의학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고자 분투했다. 유영준은 각종

38) 「女醫劉英俊氏 女子基督青年」, 『조선일보』, 1925.7.14.; 「婦人救護班」, 『조선일보』, 1925.7.14.

39) 「女醫劉英俊 륙십이인에게 의약을시료」, 『조선일보』, 1925.7.16.

40) 「朝鮮日報讀者 婦人奉悼團」, 『조선일보』, 1926.6.6.; 「부인봉도단주의사항」, 『조선일보』, 1926.6.10.

41)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항일시위운동」, 『역사비평』 4, 1989, 111-116쪽.

강연회 및 라디오 방송에 참석하여 위생 문제를 강연했다. 또 위생·의학지식 사설을 꾸준히 신문에 기고하고, 일상생활의 위생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여 대중을 교양하고자 했다. 다음은 1920년대 위생 문제를 주제로 한 유영준의 강연 및 신문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표 1, 표 2).

[표 1] 1920년대 유영준의 위생 강연

일자	장소	연제
1925.5.16.	태화진찰소 아동건강진단 시상식	예방에 대하여
1925.7.4.	조선간호부협회 주최 위생강연회	유영과 해수욕
1925.12.12.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 여류대강연회	어린 아기 위생의 일부분 관찰
1926.1.13.	경성여자청년회 주최 신춘여자대강연회	미정 (梨花校醫로서 강연 예정)
1926.4.27.	태화여자관 건강강습회	사회건강사업의 취미, 요구
1926.8.27.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주최 전조선여자하령회	병인의 음식
1927.3.12.	인천 율목리 부인의원 자모회	어머니의 주의하실 일
1927.8.22.	JODK(경성방송국) 강연프로그램	아동의 하기 위생
1927.10.13.	JODK(경성방송국) 강연프로그램	건강한 어머니[健康な母]
1927.11.3.	JODK(경성방송국) 강연프로그램	아동기의 정신위생[兒童期の 精神衛生]

출전: 『경성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표 2] 1920년대 유영준의 위생문제 관련 기고문

신문명	일자	제목
조선일보	1925.10.20.~10.22.	의학상으로본 과자와어린이(1)~(3)
조선일보	1926.1.2.~1.4.	명절끄테주의할어린이의음식물(1)~(3)
조선일보	1926.1.17.~1.20.	家庭衛生에對하여 (1)~(4)
조선일보	1926.5.6.~5.19.	개인위생과사회위생(1)~(6) 의학상으로본 의, 식,주
조선일보	1926.5.17	자녀간소생이업스니갑갑합니다
조선일보	1926.6.1.~6.2.	이와발진지부스(1)~(2)

조선일보	1926.7.27.~7.28.	빈대를박멸하자(1)~(2)
매일신보	1926.10.23	紙上放送講座
중외일보	1927.2.3	『朝鮮人と衛生』을 읽고(1)~(2)
조선일보	1927.5.16	상의 반찬을적게먹습니다
중외일보	1927.7.21	지리한 장마때에 주의할 어린이위생
동아일보	1927.8.4	미균과병독잘붓는 日常衣服에注意
조선일보	1927.8.31	상의 자고나면귀운이업습니다
조선일보	1927.9.1	랭수욕과 랭수마찰
조선일보	1927.10.29.~10.30.	小兒期の精神衛生(1)~(2) 特히家庭에서注意할 일
조선일보	1928.3.3	放心못할水道 一般家庭婦人에게드림

상기한 강연 및 기고문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활발하였던 외부 강연과 신문 기고는 1927년을 기점으로 감소되었다. 1927년부터는 근우회 활동으로 여유시간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이전만큼 강연과 신문 기고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시기 라디오 강연의 증가는 한정된 시간에 위생지식을 최대한 널리 전파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둘째, 주로 부인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아동위생에 관해 안내했다. 이는 1920년대 모성 보호 담론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유영준이 실천한 모자 보건활동인 동시에, 그녀가 일제시기 동안 진력한 여성계몽운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여성계몽문제에 있어서 구·신여성 모두를 포용하자는 입장이었다.⁴²⁾ 여성들에 대한 위생·의학지식 보급은 구·신여성 모두 점진적으로 계몽시키는 수단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조선의 대중들이 ‘여성 의사’인 유영준에게 기대한 바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유영준은 1920년대 중반 조선에 귀국한 직후부터 의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녀의 의료활동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겹쳐져 틈틈이 이어지다가 1928년 결혼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었다. 즉 1920년대는 유영준이 의료활동에 가장 헌신하고, 사회적 관심과 주목이 가장 집중된 때였다.

42) 유영준, 「新春의 새 希望 - 舊式婦人도 會습에 參席하라」, 『별건곤』 11, 1928.

이 시기 여성·아동의 건강을 돌보고 대중에게 의료를 행한 신여성 의사의 명성은 해방 이후 정치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Ⅳ.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

1. 사회주의 참여와 여성계몽·근우회 활동

유영준은 귀국 직후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행보를 보였다. 그녀는 사회주의 강연회 참여를 통해 여성계몽을 함께 펼쳤다. 1925년 4월 29일 그녀는 일월회의 안광천과 경남 하동에서 연사를 맡았다. 유영준은 “여성의 해방”이라는 연제로 성황리에 마쳤으나, 안광천의 강연 도중 경관에 의하여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⁴³⁾ 1926년 1월에는 전남 광양의 사상문제 대강연회에서 “자유연애와 시대관”을 주제로 설파했다.⁴⁴⁾ 또한 1926년 12월 일월회 해체 선언서를 직접 작성할 만큼 그녀는 동 단체에 깊이 관여하면서 사회주의에 공명하고 있었다.⁴⁵⁾

여성운동·여성계몽활동도 일본 유학 시기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녀는 언론인에게 여성에 대한 선입견 철폐를 당부하는 한편 조선일보사 주최 가정문제 합평회에 참석하여 연애·결혼·육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⁴⁶⁾ 예컨대 여학생의 자유연애는 풍기문란이 아니며 전통적 정조관념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등 당시로서 그녀의 의견들은 매우 파격적이었다.⁴⁷⁾

43) 「河東講演中止」, 『조선일보』, 1925.5.6.

44) 「思想大講演」, 『동아일보』, 1926.1.12.

45) 「東京있는 一月會解體」, 『조선일보』, 1926.12.12.

46) 「中外日報에 對한 社會各方面의 希望 親切한 諸名士의 高見(3)」, 『중외일보』, 1926.1.19.; 「本社主催 女名士家庭問題合評會」, 『조선일보』, 1927.1.1.; 「本社主催 女流名士家庭問題合評會(續)」, 『조선일보』, 1927.1.2.

47) 「자유에 방입하라 제재를 한대야 효과는 업다」, 『중외일보』, 1927.1.9.; 「延專崔活氏

이러한 여성 인식을 바탕으로 유영준은 1927년 근우회 창립에 직접 가담하였다.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1927년 5월 민족주의·사회주의 여성활동가들이 협력하여 창립된 대중조직이었다. 유영준은 근우회 발기총회에서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창립 후에는 서기 및 집행위원으로 피선되었다.⁴⁸⁾ 근우회에서 주도한 제1회 여성문제 대토론회, 평양지회 설치 준비회, 박원희 장례 준비위원회, 재만동포 동정음악회, 경성지회 설립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했다. 초지일관한 사회주의 행보를 보인 허정숙, 주세죽 등과는 달리 그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비사회주의 계열과 친목 연대 하며 활동했다.⁴⁹⁾

유영준은 강연과 신문·잡지 등을 통해 꾸준히 여성계몽을 전개했다. 1928년 새해 첫날부터 자선의 혜택은 남성에게만 적용되므로 여성들은 온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서로 연대하여 혜택과 권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⁵⁰⁾ 또한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사회제도에 결연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성 문맹퇴치에 대하여 강연했다.⁵¹⁾

한편 조선공산당 사건 관련 회동에서 유영준의 사회주의적 성향이 다시금 확인된다. 제1·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공판이 진행 중이던 1927년 10월 15일 그녀는 조선공산당 사건의 피고인 가족을 위한 위안회에 근우회 대표로 참석하여 내빈 측 답사를 담당했다.⁵²⁾ 11월에는 유영준은 사건을 맡은 후루야 사다오(古屋貞雄) 변호사의 송별회 발기에도 참여했다.⁵³⁾ 이러한 행적을

의 『余의 婚姻觀』을 읽고(上, 下)』, 『중외일보』, 1927.1.22.-1.23.; 『新女性과 貞操問題 (一~七)』, 『동아일보』, 1927.4.2-4.9.

48) 『◇創立總會委員會』, 『조선일보』, 1927.4.28.; 『各方面網羅 權友會創立』, 『동아일보』, 1927.5.29.

49) 김경일, 앞의 책, 2016, 135쪽.

50) 「姑息의 慈善의 弊害」, 『조선일보』, 1928.1.1.

51) 「문저 사회제도에 항의함이 당연한 일 劉英俊氏談」, 『매일신보』, 1928.1.13.; 「JODK 프로그램, 三月廿四日(土曜日)」, 『경성일보』, 1928.3.24.

52) 「共産黨被告 家族慰安會」, 『매일신보』, 1927.10.17.

‘사회주의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월회 가입 전적과 해방 후의 행보까지 함께 연결해 보면 그녀의 사상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영준의 활발한 활동은 결혼과 출산·육아로 중단되었다. 1928년 10월 유영준은 전남 순천의 대지주였던 김종필과 결혼했다.⁵⁴⁾ 평소 그녀가 주창 하였던 자유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이어졌으리라 추측된다. 1929년 5월 딸을 낳고 육아에 힘쓰면서⁵⁵⁾ 대부분의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경성여자소비조합 감사장으로서 일용품을 염가에 알선하는 소비조합운동에 잠시 가담했으나⁵⁶⁾ 1931년 근우회 해체 후에는 더욱 두문불출했다. 진료만이라도 재개해 달라는 대중의 요구에 유영준은 “제일 재미있는 것은 아이 기르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활동하고 싶어도 사정상 힘들다고도 고백했다.⁵⁷⁾

2. 여성 의학교 설립 및 승격운동 참여

1926년 이래 유영준은 여성 의학교의 설립과 승격을 도모했다. 이는 여성 환자를 위하여 조선인 여성 의사를 양성하고자 한 로제타 홀의 취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정희를 필두로 한 도쿄여의전 출신 의사들은 홀에게 공감하며 함께 행동했다.⁵⁸⁾

유영준은 여성 의학교에 대해 논의된 초기부터 조선의 여성 환자들을

53) 「六十日間奮闘 古屋氏送別會」, 『조선일보』, 1927.11.22.

54) 「휴지통」, 『동아일보』, 1928.10.15.

55) 「요새이 생각나는 사람」, 『별건곤』 24, 1929, 71쪽.

56) 「勞働服의 大行進, 階級的 前衛의 旗를 들고 一百娘子軍이 團結, 京城女子消費組合 訪問記」, 『삼천리』 12, 1931, 47쪽.

57) 「코-바디스?, 行方不明氏 探查錄」, 『별건곤』 30, 1930, 77쪽; 「京城名人物 「스면」錄」, 『별건곤』 34, 1930, 109쪽; 「一問一答記 5」, 『별건곤』 36, 1931, 52쪽; 「새해와 그들! 그들과 새해」, 『매일신보』, 1931.1.1.

58) 최은경, 앞의 논문, 2016, 303-304쪽.

위해서는 여성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무엇보다 위대한 사업은 여의학교”라며 홀의 뜻에 공명했다.⁵⁹⁾ 이후 기성회에 참여하여 회원 모집을 담당하기도 했다. 홀과 여성 의사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1928년 9월 4일 조선여자의학강습소가 개강했다.⁶⁰⁾

동 강습소는 길정희의 남편 김탁원이 소장에 취임하면서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개칭했고, 1933년 홀의 은퇴로 미 감리교의 지원이 중단되어 심각한 재정난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의학전문학교가 아닌 관계로 졸업생들은 의사 검정시험을 통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총독부가 해당 검정시험을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⁶¹⁾

1934년 4월 3일 김탁원·길정희 부부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재단법인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계획했고 곧이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영준은 준비위원으로서 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과 직접 교섭하여 여의전 창립 운영 자금 마련에 일조했다.⁶²⁾ 1937년 5월 조선제사주식회사 사장 김종익이 여자의전 승격 기금을 남기고 사망하자, 그의 제수(弟嫂)였던 유영준이 대신 유지를 전하고 여의전 이사로서 개교를 위해 진력했다.⁶³⁾

1938년 4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의 개교까지는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김종익의 부인 박춘자는 재단법인 우석학원(友石學園)을 따로 설립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사토 고조(佐藤剛藏)와 접선하는 등 여의전 설립에 돌연 박차를 가했다.⁶⁴⁾ 그 과정에서 원래 여성 의학교 설립과 승격을 추진해

59) 「조선의 여의학교－유영준」, 『기독신보』, 1926.10.27.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310-311쪽에서 재인용)

60) 「初期事業으로 九月부터講習會」, 『동아일보』, 1928.5.21.

61) 공혜정,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전문교육기관 탄생의 산과 역할을 한 산부인과 의사, 길정희」, 『대한의사협회지』 64-10, 718쪽.

62) 「女醫專創立 準備委員會」, 『조선일보』, 1934.12.21.

63) 「社會事業에는 平素도熱心」, 『조선일보』, 1937.5.8.; 「故金鍾翊氏의 遺業인 女醫專明春開校」, 『매일신보』, 1937.11.27.

은 김탁원·길정희는 점차 배제되었다. 박춘자의 태도 변화는 김종익을 전면
에 내세우고 싶은 유족과 일본인을 개입시키려는 총독부의 의중이 합치한
결과로 추측된다.⁶⁵⁾

그러나 유영준은 1937년 7월 김종필과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음에도 여의
전 이사로서 책임을 다했다.⁶⁶⁾ 경성여의전 승격 문제가 전 시숙 내외와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느꼈을 당혹감은 매우 컸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위한 의학교육기관은 의료·위생지식 보급의 귀결이자 여성계몽의
결실로서 그녀에게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유영준은 여성 의학교육
확대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혼 후에도 경성여의전 문제에 천착했다.

경성여의전 승격 과정에서 유영준이 이혼한 사유는 밝혀진 바 없으나
성향 및 가치관 차이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녀와 김종필은 정반대의 사람이
었다. 유영준은 해외 유학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여성 사회주의자였지
만, 김종필은 고향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유지였고 소작인들에게는 ‘악지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⁶⁷⁾ 또 일찍부터 다른 여성 의사들과 함께 관여하던 문제
에 김종필의 부인·친족이 개입하여 주도권을 쥔 사실도 그리 유쾌하지
않았을 것이다.⁶⁸⁾ 즉 부부간 성향 차이가 극명한 데다 경성여의전 승격
추진과정에서 사이가 더욱 벌어져 결국 이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영준은 의료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운동가로
도 이름을 알렸다. 결혼 후 잠시 활동을 멈추었으나 여성 의학교육에 대한
의지는 다시금 그녀를 사회로 이끌었고 경성여의전 설립이라는 결실로 이어
졌다. 한편 1938년 경성여의전이 승격된 후 유영준은 한동안 개인 산부인과

64) 「織手に“메스”를잡다! “杏林”開拓도이봄에」, 『조선일보』, 1938.1.1.

65) 최은경, 앞의 논문, 2016, 308쪽.

66) 「한때話題의女性들의後日譚」, 『신여성』 2-7, 1937.

67) 「憤慨한玉谷小作會」, 『조선일보』, 1925.5.2.; 「全收六十一石에 作料五十八石」, 『동아
일보』, 1925.12.10.; 「甲의未納을 乙에게徵求」, 『조선일보』, 1926.6.2.

68) 「親族會議의 決議文」, 『동아일보』, 1937.6.28.

병원과 탁아소 운영 외에 모든 대외적 활동을 중단했다.⁶⁹⁾ 이는 총동원체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의 대외적 활동이 어려워져 은둔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그녀는 유학 동안 축적한 전문능력·경험·인맥·가치관을 기반으로 일제시기 사회 다방면에 적극 진출하여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다. 이는 신여성 의사의 명망에 더하여 해방 이후 이어진 정치활동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V. 해방 후 여성운동과 좌익·북한 정치활동

1. 해방 직후 여성운동의 지도자: 건국부녀동맹·조선부녀총동맹 위원장 선임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유영준은 오랜 공백을 깨고 좌우를 망라한 여성계의 주요 지도자로 부상했다. 첫 시작은 건국부녀동맹(建國婦女同盟) 결성이었다. 1945년 8월 17일 건국부녀동맹은 해방 후 당대의 여성활동가들이 대거 집결하여 결성된 첫 여성단체로, 결성 직후부터 곧바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9월 15일 전국대회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영준, 부위원장에 박순천이 정식 선임되었다.

건국부녀동맹은 선언 중에서 “현재 당면한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의하여서만 그의 일부분인 우리 여성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문제가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여성해방과 조선사회의 완전한 해방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운동의 구체적 과제는 생략하였는데 이는 건국부녀동맹이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여성들의 결합체라는 특성에서 기인

69) 「한때話題의女性들의後日譚」, 『신여성』 2-7, 1937; 김오성, 앞의 책, 1946(김남식 편, 앞의 책, 2010, 688쪽).

한 것이었다.⁷⁰⁾

유영준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그녀가 해방 직후 좌우익 여성계의 지도자로서 공인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건국부녀동맹은 통일적 여성단체로서 좌우익을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 치하 근우회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여성운동가들이었다.⁷¹⁾ 이들 사이에서도 유영준은 예전의 정력적인 행보를 기반으로 전문직 엘리트이자 여성계의 중진으로서 명망이 특출하였다. 그녀는 그동안 구축한 사회적 명성과 위신을 바탕으로 좌우익 여성에게 모두 인정받아 단번에 위원장직에 오를 수 있었다.

건국부녀동맹은 결성 다음날인 18일부터 약 1개월간 가두청소운동, 이재민 구휼운동, 출옥동지의 식사급여활동을 개시하여⁷²⁾ 개편 직전까지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여타 정당과 함께 연합군을 환영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하였고, 11월 9일에는 간부회를 통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입장을 결의했다. 또 청년단체대표자회에 참가하여 '신탁관리설'에 반대하고 일본인재산불매동맹을 결의했다. 그밖에 정치계몽 강좌, 문맹퇴치 등 활동을 벌였다.⁷³⁾ 10월 2일 결성된 건국부녀동맹 서울지부는 11월 27일부터는 여성대중에 대한 교육계몽을 위하여 부녀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동 강연회에서 유영준은 '청년의 후생운동'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⁷⁴⁾

1945년 12월 건국부녀동맹은 조선부녀총동맹(朝鮮婦女總同盟, 이하 부총)으로 개편되면서 좌익 여성단체로 거듭났다. 인공수립의 정당성을 강연해 줄 여성대표 13명을 선임해달라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요청을 박순천이

70) 「건국부녀동맹의 선언 강령」, 『자료대한민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8; 이승희, 앞의 책, 1994, 89-90쪽.

71) 이승희, 위의 책, 65-66쪽.

72) 이승희, 앞의 논문, 1994, 240쪽.

73) 문지현, 앞의 논문, 2017, 247-248쪽.

74) 이승희, 앞의 책, 1994, 154쪽.

거절하면서 동맹 내부의 좌우 갈등이 고조되었다. 이는 우익 여성들의 대거 탈퇴로 이어졌다.⁷⁵⁾ 부총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영준은 강연회를 개최하여 현 시국을 설파하고 조선여자국민당에 대해 극우 독재정권을 추구하는 반동 분자라고 일갈하는 등⁷⁶⁾ 좌익 여성의 대변인을 자임했다.

부총은 조선공산당의 외곽 대중조직으로 편성되면서 조공의 투쟁노선에 따르기 시작했다. 당의 외곽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 속에 침투시키고 수행활동을 위해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부총도 외곽조직으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띠며, 여성 대중을 교양시키고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시키도록 기능했다.⁷⁷⁾ 일찍이 일일회에서 활동하였고 조공 재건파에 속하였던 점이 그녀가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⁷⁸⁾

해방 직후 조공은 좌익세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평화적 합법투쟁을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했다.⁷⁹⁾ 조공의 방침에 따라 부총도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수립을 추구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부총은 개편 당시부터 여성 차별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보적 민주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행동강령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우익 여성과 함께 공창제 폐지 법안 및 남녀평등 법안 제정을 미군정에 건의하고 관련 좌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중 여성 기반의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쌀 요구 투쟁, 수해동포 구제 및 원호, 혁명가 가족 지원사업, 여성 문맹퇴치 및 계몽운동에 앞장섰

75) 양동숙,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382쪽.

76) 「婦女時局講演會」, 『조선일보』 1946.1.10.; 「여장 파쇼를 경계하자」, 『현대일보』, 1946.6.9.

77) 박현선,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36-38쪽.

78) 「남로당 합당 관련 각 파벌의 인물 분류 서류」, RG 554, Box No.78, Party Classifications Folder.

79)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235쪽.

다.⁸⁰⁾

유영준과 조공 간의 관계는 1946년 초 민주주의민족전선 조직에 직접 참여하면서 더욱 밀접해졌다. 주지하다시피 민전은 조공이 주도하는 남한 내 모든 좌익단체의 총집결체였다. 조공과 직결된 부총의 위원장으로서 유영준의 민전 참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1946년 1월 유영준은 민전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고⁸¹⁾ 2월에 개최된 민전 결성대회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이 되었다.⁸²⁾

한편 이 시기 부총의 정치활동은 모스크바 3상결정 지지에 집중하면서 조공의 입장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여성대중을 대상으로 선전해설작업에 분투했다.⁸³⁾ 그 일환으로 4월 27일 유영준은 부총 위원장으로서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5호에 대한 선언서를 제출했다.⁸⁴⁾ 1946년 4월 18일 군정청 공보국은 공동성명 제5호를 발표하여, 공위에 참여할 정당·사회단체는 모스크바 3상 결정 전면 수락의 선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찬탁·반탁의 거센 대립 상황에서 선언서 제출은 찬탁의 공표를 의미했다. 좌익 측에서는 속속 선언서를 냈다.⁸⁵⁾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여 부총의 유영준도 공식적으로 모스크바 3상 결정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2. 남조선로동당 참여와 좌익 정치활동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위는 무기한 휴회 상태에 빠졌다. 반탁운동을

80) 문지현, 앞의 논문, 2017, 252-254쪽.

81) 「統一戰線準備委員은二四」, 『조선일보』, 1946.2.1.

82) 「議長十五名選舉 左派의結成大會經過」, 『동아일보』, 1946.2.16.

83) 이승희, 앞의 책, 1994, 164쪽.

84)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5호에 대한 조선부녀총동맹의 선언서(1946.4.27.)」, RG 554, Box No.30, Declarations of Political Parties Folder.

85) 「第五號聲明에- 民主陣營은慎重 共產陣營만續々署名提出」, 『동아일보』, 1946.4.24.

주도한 우익의 세력이 확대되었고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사건을 시작으로 좌익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박헌영은 공산당의 전술 변화를 주장했고 7월 27일 조공은 이른바 ‘신전술’을 채택했다. 신전술의 핵심은 미군정의 탄압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의 전술전환으로, 좌우합작 대신 대중동원을 통한 미소공위 재개방침을 강조한 것이었다.⁸⁶⁾

조공의 신전술 채택에 따라 부총의 활동방침은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부총은 독자적인 대회와 집회를 개최하면서 민전과 보조를 맞추어 성명서·담화문 발표, 대회 참가, 대회에의 여성 동원 등에 행동을 집중했다.⁸⁷⁾ 유영준의 정치활동도 이전보다 공세적 면모를 보였다. 1946년 9월 유영준은 민청 주최 국제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누런 옷에 누런 단추를 단 놈은 때려죽여라”고 경찰을 위협하는 축사를 낭독했다. 동 발언으로 인해 그녀는 포고령 제2호 위반혐의로 구금되어 군정재판에 회부되었다.⁸⁸⁾

한편 미군정의 좌익세력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좌익 3당은 남조선로동당으로 합당했다. 1946년 11월 23-24일 결당대회에서 유영준은 신민당 출신으로서 의장단에 뽑혔고, 12월 10일 중앙위원회·중앙감찰위원회 공동회의에서는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회의에서 남로당 중앙위원회는 전술적 목적을 위해 대중조직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들에 대한 지도 강화를 결정했다.⁸⁹⁾

86) 박헌영이 주장한 전술 변화는 세 가지로 첫째는 좌우합작에 대한 내용적 거부로서 합작 5원칙 제출, 둘째는 좌익 3당 합당 추진, 셋째는 ‘신전술’의 채택이었다. 그는 6월 하순부터 7월 22일까지 방북하는 동안 북한 공산주의자 및 소련과의 합의로 조공의 노선변화가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병준,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1993, 29-30쪽.

87) 이승희, 앞의 논문, 1994, 273-274쪽.

88) 「劉婦總長拘束」, 『조선일보』, 1946.9.5.; 「劉英俊 여사 등 군정재판에 회부」, 『자유신문』, 1946.9.6.

89) 「로마네포가 메레츠코프 동지에게 보낸 남조선 정세에 대한 정보자료 (1946.11.2

남로당 창당에 유영준이 가담하면서 부총은 미군정 비판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 1946년 12월 26일 부총은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미소공위 속개와 모스크바 3상 결정의 즉시 시행 등의 요구안을 하지 중장에게 제출했다.⁹⁰⁾ 미군정에 대한 비판은 여성권익문제와도 연결되었다. 1947년 1월 호남선 열차 안에서 미군이 부녀 3명을 겁박·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군정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언도하자, 유영준은 부총 위원장으로서 하지 중장을 수차례 직접 만나 극형 처분을 요구하였고 그에게 엄벌 약속을 받아냈다.⁹¹⁾

1947년 2월 10일 부총은 제2차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남조선민주여성동맹(南朝鮮民主女性同盟, 이하 여맹)으로 개칭했다. 위원장에는 유영준이 피선되었다.⁹²⁾ 여맹은 개칭에 대해 남북한 여성단체의 통일과 세계 평화 기여를 목표했다고 밝혔다.⁹³⁾ 하지만 실상은 미군정의 좌익운동 탄압으로 부총의 조직력이 약화되면서 전국적 지도조직에서 남한만의 여성운동 통일체로 축소된 결과였다.⁹⁴⁾ 반면 본래 부총 산하에 편제되었던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北朝鮮民主女性總同盟)은 독자조직을 유지하면서 조직력을 키워 여맹을 지도하는 역할로 전환되었다.⁹⁵⁾

6.)),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03, 175쪽; 「이그나찌예브 대좌가 쉬피코브 동지에게 보낸 남조선로동당 통보 (1946.12.)」,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정세 보고서』, 193-194쪽.

90) 「婦總一周年記念式盛大」, 『조선일보』, 1946.12.27.

91) 「하-지中將에抗議」, 『조선일보』, 1947.1.14.; 「婦總劉英俊氏에 嚴重處斷을 約束」, 『독립신보』, 1947.1.15.; 이승희, 앞의 책, 1994, 56-57쪽.

92) 「婦總大會閉會」, 『조선일보』, 1947.2.12.

93) 「남조선민주녀성총동맹대회서 북조선민주녀성동맹에 서신」, 『로동신문』, 1947.3.28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9, 2018, 187-188쪽).

94) 이승희, 앞의 논문, 1994, 245쪽.

95)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은 1945년 11월 북한지역 6개 도 여성대표들이 평양에서 결성한 중앙여성동맹을 모체로 한다. 1946년 5월 10일 제1차 대회를 소집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강령과 규약을 채택했다. 여성대중을 규합하여 인민정

1947년 5월 미소공위 재개 후 민전 결정에 따라 유영준은 여맹 위원장으로 서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가했다. 미·소 양측 대표는 민주주의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토의하여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의 방법 및 그 대상 규정에 관해 합의를 보았다. 즉 공위 협의 참가는 공동성명 제5호의 선언서에 서명한 정당·사회단체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⁹⁶⁾ 6월 16-17일 민전은 의장단 및 산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민전중앙여성자대회를 소집하여 미소공위 협의대상에 적극 참가를 결정했다. 유영준은 남한 여성의 대표자로서 6월 25일 협의에 참가했다.⁹⁷⁾

제2차 미소공위는 쉽사리 진척되지 않았다. 미소공위 협의대상을 둘러싼 좌우익의 경쟁과 우익의 정치테러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도 심해졌다. 특히 여운형의 암살은 좌익의 미소공위 사수와 혁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유영준은 7월 27일 민전 주최의 미소공위 경축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축진 시민대회에 서울 지역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여했다.⁹⁸⁾ 남한 전역에서 동시 개최되고 미·소 수석대표와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21명의 위원 중 하나로 추천되었다.

시민대회가 끝나고 좌익 측에서는 8월 15일을 기하여 대중투쟁을 기도했다. 대외적으로는 민전이 주최하는 해방 2주년 기념 시민대회였지만, 실상은 소련군사령부와 남로당의 박헌영, 허헌 등이 내통하여 계획한 비합법 혁명투쟁이었다.⁹⁹⁾ 좌익의 폭동을 예견한 미군정은 일반 정당·사회단체의 집회를

권 수립에 동원하고자 창립된 이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인습 탈피를 위하여 정치운동에 적극 참가했다.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에 대해서는 김광운, 「해방 직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상황과 정치 참여」, 『사학연구』 77, 2005 참고.

96) 김행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의 노선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추진운동」, 『국사관논총』 103, 2003, 7-8쪽.

97) 「各政黨, 團體와會同」, 『경향신문』, 1947.6.26.

98) 「27일 남조선 전역에서」, 『강원인민보』, 1947.7.27.

99) 「八·一五暴動陰謀事件」, 『조선일보』, 1947.10.14.

금지하는 행정명령 제5호를 발포하여 시민대회 개최를 막고자 했다. 이에 유영준을 포함한 민전 의장단 대표 3명은 민정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8월 5일 행정명령 제5호의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¹⁰⁰⁾

남로당은 시민대회 개최 강행을 지시하였고, 8월 11일부터 미군정은 대대적인 좌익 검거를 단행했다. 수도권에서 검거한 민전 소속 좌익 인사 수백여 명 중에는 여맹의 유영준도 있었다.¹⁰¹⁾ 체포자 대다수가 미소공위 협의대상 선정자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3상 결정안의 수행 및 미·소간의 협정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다.¹⁰²⁾ 소련 수석대표 스티코프는 좌익 인사들의 석방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수석대표 브라운은 내정간섭이며 공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일축했다.¹⁰³⁾ 결국 유영준은 8월 중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검거되어 11월 말까지 취조받은 후에야 무죄 석방되었다.¹⁰⁴⁾

석방 이후 유영준은 남한에서의 대외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소위 ‘8.15폭동 음모사건’ 이후 남로당과 민전을 비롯한 좌익단체들은 완전히 비합법 상태에 들어갔다. 여맹도 성명서 발표 외에는 합법적 활동이 어려웠고, 여성 운동은 비밀리의 비합법 당활동으로 전환되었다.¹⁰⁵⁾ 더욱이 미군정 공보부장은 신주소 등록 없이 본부 혹은 지부를 이전한 단체들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수속하지 않으면 법령 제55호 위반으로 간주하여 해산시킬 것을 발표했다. 이는 여맹을 포함한 대다수 좌익단체의 해산을 겨냥하고 있었다.¹⁰⁶⁾ 좌익

100) 「人民自身の 紀念大會로 民衆의 要求를 共委에 反映, 解放記念日앞두고 民戰서 聲明」, 『부산신문』, 1947.8.7.

101) 「左翼系列에檢舉旋風」, 『조선일보』, 1947.8.13.

102) 김행선, 앞의 논문, 2003, 29쪽.

103) 「左翼指導者檢舉는 共委決裂이 目的!, 正常狀態에 回復을 主張, 兪大將聲明發表」, 『부산신문』, 1947.8.24.; T. F. Shtykov, 전현수 역, 『쉬피코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147쪽.

104) T. F. Shtykov, 전현수 역, 위의 책, 148쪽; 「洪중植氏等 無罪로釋放」, 『조선일보』, 1947.11.22.

105) 이승희, 앞의 책, 1994, 173-174쪽.

진영의 간부들은 속속 월북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유영준은 남한에 남아 있었다.

3. 남북연석회의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

1947년 10월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1948년 1월 서울에 도착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총선거에 관한 좌익의 인사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선거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미소 양군 철수 후 유엔 감시하 전국 총선을 주장한 김구·김규식은 유엔위원단과 남북지도자 회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¹⁰⁷⁾ 이에 관해 협의하고자 유엔위원단 제2분과위원회는 허성택, 허헌, 김원봉, 백용희, 유영준 등 좌익인사 5명과의 회견을 요청했다.¹⁰⁸⁾ 남한에서 좌익의 세가 심히 위협받는 와중에도 좌익 유력자로서 유영준의 위상은 건재했다.

한편 남로당은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와 유엔위원단의 활동은 남한의 단선단정 수립을 목표로 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반대를 결정했다. 이들은 남한의 단선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2·7구국투쟁을 계기로 무장투쟁 전술을 채택했다. 남로당의 전술 변화에 따라 여맹도 단선단정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다만 남한 내 좌익 활동이 완전히 비합법화된 시기였으므로 합법적 선언 및 성명서 발표 수준에 그쳤다.¹⁰⁹⁾

1948년 2월 김구·김규식은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남북지도자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3월 말이 되어야 4월 중 평양에서 대규모 연석회의와 소규모 연석회의로 나눠 개최하자고 회신하면서 남한에서 초청

106) 「移轉登錄빨리하라, 怠慢團體는 解散令」, 『부산신문』, 1947.9.19.

107) 도진순, 「1948년 남북연석회의와 남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동향」, 『국사관논총』 54, 1994, 114쪽.

108) 「左翼要人協議」, 『조선일보』, 1948.2.20.

109) 이승희, 앞의 논문, 1994, 276-277쪽.

할 지도자를 지명했다. 초청 인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좌익 계열은 여맹 대표 유영준을 포함한 8명이었다.¹¹⁰⁾ 이에 유영준은 북행하여 4월 19일 대규모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고¹¹¹⁾ 회의석상에서 미국과 남한의 단선 시도를 규탄하는 축사를 남겼다.¹¹²⁾

그러나 그녀가 남북한 통일정부까지 구상하고 있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대규모 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선 반대투쟁만 합의했을 뿐이었다.¹¹³⁾ 북한은 연석회의 도중 북조선특별인민위원회를 개최하여 독자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 채택을 강행하였고, 남한 대표로 유영준 및 민진 소속 좌익들이 참관했다.¹¹⁴⁾ 이로 보아 유영준은 북한 주도의 통일정부 혹은 북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하고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서 단선이 실시되자 북한은 즉시 독자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남북한에서 각각 대의원 선거 시행을 결정했다.¹¹⁵⁾ 194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남한에서는 지하 선거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자 1,080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8월 21일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비합법적으로 월북했다.¹¹⁶⁾ 종로에서 피선된 유영준도 이때 함께 월북하여 북한에 잔류했다. 그녀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당선되는 동시에 주석단으로 선정되었다.¹¹⁷⁾ 9월 초 제1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지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는 등 북한 정권의 창립에 있어서

110) 「南北政治協商에對한 往復書翰의內容」, 『조선일보』, 1948.4.1.

111) 「北行한人士와團體名簿」, 『경향신문』, 1948.4.21.

112) 「축사(요지), 남조선민주녀성동맹 류영준」, 『로동신문』 1948.4.22(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19, 2018, 221-222쪽).

113) 서중석, 『남북협상』, 한울, 2000, 203-210쪽.

114) 윤경섭, 「1947-1948년 북한의 정부수립 문제와 남북연석회의」, 『사림』 21, 2004, 54쪽; 「憲法草案審議, 北朝鮮 特別人民會議開催」, 『부산신문』, 1948.5.4.

115) 윤경섭, 위의 논문, 60-62쪽.

116)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499-500쪽.

117) 「인민의 총의로 선출된 천여명대표 1당에 참집」, 『함남인민보』, 1948.8.22.

주요 인사로 자리매김했다.¹¹⁸⁾

유영준의 활동은 북한에서도 계속되었고 국제무대에까지 확장되었다. 1948년 12월 헝가리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여성대회에 참가하여 세계 여성들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논했다.¹¹⁹⁾ 1950년 3·8 부녀절에는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와 단합을 염원하는 기념사를 발표하기도 했다.¹²⁰⁾ 또 남한 토지개혁 실시를 위한 법령기초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피선되었다.¹²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위원 및 의장단에 선출된 이후로는¹²²⁾ 대외적으로 조국전선 소속으로서 활동했다. 한국전쟁 중에도 조국전선 의장단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외국 군대의 철수와 우익 인사의 재판 회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¹²³⁾

1960년대 초까지 유영준의 정치적 입지는 공고했다. 1951년 1월 남북조선여맹이 합동하여 발족한 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 그녀는 중앙상무위원을 맡았다.¹²⁴⁾ 1957년 8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2기 대의원에 재선되었고 1958년 경공업성 부상, 1960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¹²⁵⁾ 월북 이후로는 남로당과 다른 방향의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1958년

118) 「北韓憲法審議」, 『조선일보』, 1948.9.8.; 「北朝鮮에 人民共和國 金日成內閣成立」, 『조선일보』, 1948.9.11.

119) 「세계 민주여성들은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싸운다!」, 유영준씨 담, 『로동신문』, 1949.1.11(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26, 2018, 130-131쪽).

120) 「조선 여성들은 평화와 민주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 민주여성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유영준, 『로동신문』, 1950.3.8(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39, 2019, 111-115쪽).

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46호」, 『함남로동신문』, 1949.5.12.

12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단과 중앙상무위원회 선거」, 『함남로동신문』, 1949.6.30.

123) 「조선인민의 성명서」, 『해방일보』, 1950.9.1.

124) 「남북조선녀맹 합동하여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신발족」, 『조선인민군』, 1951.1.26.

125) 「選舉를 통해서 본北韓 ①」, 『경향신문』, 1962.8.18.; 「류영준동지의 서거에 대한

김일성의 숙청을 면하고 정치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972년 9월 18일 유영준은 향년 82세로 별세하여 애국열사릉에 안치되었다.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로동신문』에 그녀의 부고를 알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¹²⁶⁾ 1990년 8월 15일 북한 정권은 그녀의 정치적 공적을 치하하여 조국통일상을 수여했다.¹²⁷⁾

해방 후 유영준은 그간 쌓아 올린 사회적 위상과 다채로운 경험에 기반하여 좌익 정치인으로 활약했다. 그녀는 자유롭고 혼란한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을 망라한 여성 대중을 선도하였고, 남성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열렬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1948년 월북한 이후로도 줄곧 정치계의 중역을 담당했다. 구한말 평양의 하층민으로 태어난 유영준은 이리하여 북한의 고위급 정치인사까지 올라섰다.

VI. 맺음말

유영준은 성별·출신·나이·가부장제·식민권력 등의 시대적 질곡을 벗어난 지고 일평생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분투한 입지전적 여성이었다. 빈궁한 출신이었으나 근대 교육과 해외 유학을 통하여 실력·경험·가치관·인맥을 쌓았고 여성 엘리트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녀는 식민지기의 격랑 속에서도 의학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성과 아동을 구제했고 대중에게 위생·

부고, 『로동신문』, 1972.9.29.; 중앙일보사 부속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1981, 248쪽. 『로동신문』의 유영준 부고 기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광운 교수님의 소장자료로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에 미공개된 내용이다. 지면을 빌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광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126) 「류영준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로동신문』, 1972.9.29.

127) ‘조선의 오늘’ 웹사이트, ‘류영준’ 소개문 참조. <https://dprktoday.com/news/2050>

학 상식을 교양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여성계몽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다방면하게 활동했다. 해방 후에는 신여성 의사에서 좌익 여성 정치인으로 더욱 발돋움했다. 그간 축적한 경험과 사회적 위신은 그녀를 향한 정계와 대중의 지지 기반으로 작용했다. 유영준은 정계에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였고, 월북한 이후 북한 정권의 고위직으로 등극했다.

그녀의 족적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제약이 팽배하였던 시대에 유영준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 의사로, 또 여성 정치인으로 입신양명했다. 그녀는 당대의 남성 엘리트들과 견주며 다방면으로 유능한 자질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지자적 위치에서 많은 여성들을 구하고 이끌며 한반도 전체 여성의 편익과 권익 신장을 도모했다. 이러한 면모는 한국 근현대 의료사·여성사·정치사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영준의 일생을 최대한 총체적으로 추적하여 그녀의 역사적 위상을 복원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유영준의 출신과 가계, 중국 유학 동안 안창호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또한 월북 이후의 행적, 특히 조공·남로당과 연계하여 활동한 유영준이 김일성의 숙청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정황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유영준의 생애에 대한 공백과 의문점은 차후의 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강원인민보』 『경성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매일신보』 『별건곤』 『부산신문』 『삼천리』 『자유신문』 『조선인민군』 『여자계』 『조선일보』 『중외일보』 『함남로동신문』 『함남인민보』 『해방일보』 『현대일보』

27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eoul:
Y.M.C.A. Press, 1925.

古稿卓四郎, 「在京朝鮮人狀況」,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一般ノ部 二』, 1924.5.31.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一覽. 昭和3年』, 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 1928.

「三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 - 黃愛施德 訊問調書(第2回)」,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권 三一運動 IV』, 국사편찬위원회, 1988.

「要視察朝鮮人種別姓名表 → 要視察人朝鮮人名簿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內地 十一』, 1920.7.8.

「二八三、阿部充家」, 『齋藤實關係文書日録 書翰の部 1』, 国立国会図書館, 1998.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 齋藤實文書 書簡の部: 유영준(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598791), 연도미상(1925년 추정).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30, Declarations of Political Parties Folder, 「미소공동위원회 공동성명 제5호에 대한 조선부녀총동맹의 선언서(1946.4.27.)」.

RG 554, Box No.78, Party Classifications Folder, 「남로당 합당 관련 각 파벌의 인물 분류 서류」.

국사편찬위원회 편,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소련군정문서, 남조선

- 정세 보고서 1946-1947』,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공혜정,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전문교육기관 탄생의 산과 역할을 한 산부인과 의사, 길정희」, 『대한의사협회지』 64-10, 2021.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 기창덕,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1995.
-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 김광운, 「해방 직후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의 상황과 정치 참여」, 『사학연구』 77, 2005.
- 김광운, 『북조선 실록: 년표와 사료』, Korea Data Project, 2018-2019.
- 김남식, 『남로당연구』 2, 돌베개, 1984.
-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 김행선,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의 노선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추진운동」, 『국사관논총』 103, 2003.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편, 『도산안창호전집』,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0.
- 도진순, 「1948년 남북연석회의와 남한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동향」, 『국사관논총』 54, 1994.
- 문지현, 「해방 후 좌익계 여성운동의 방향과 한계: 잡지 『여성공론(女性公論)』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54, 2017.
- 박현선,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 백옥경, 「근대 한국여성의 일본유학과 여성현실인식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39, 2009.
- 서중석, 『남북협상』, 한울, 2000.
- 양동숙, 「해방 후 독립축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2, 2010.
- 윤경섭, 「1947-1948년 북한의 정부수립 문제와 남북연석회의」, 『사림』 21, 2004.
-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항일시위운동」, 『역사비평』 4, 1989.
- 이배용, 「일제하 여성의 전문직 진출과 사회적 지위」, 『국사관논총』 83, 1999.
- 이승희, 「미군정기 좌익 여성운동 연구: '조선부녀총동맹'을 중심으로」, 『여성운

- 동과 정치이론』, 녹두, 1994.
-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 정병준,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1993.
- 정창현, 「1946년 좌익정치세력의 ‘삼당합당’ 노선과 추진과정」, 『한국사론』 30, 1993.
- 주양자 외, 「우리나라 근·현대여성사에서 여의사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 『대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2.
- 중앙일보사 부속 동서문제연구소 편, 『북한인명사전』, 중앙일보사, 1981.
-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의사들의 활동 -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졸업 4인을 중심으로」, 『코기토』 80, 2016.
- 최은경, 「러시아혁명과 일제강점기 조선 모성 보호의 전개」, 『여성문학연구』 42, 2017.
- T. F. Shrykov, 전현수 역, 『쉬띠꼬프 일기』,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조선의 오늘’ 웹사이트(<https://dprktoday.com>)

Abstract

THE LIFE AND ACTIVITIES OF YEONGJUN YEW: FROM NEW
WOMAN DOCTOR TO LEFTIST LEADER OF WOMEN'S
MOVEMENT

LEE HEEJAE (LEE, HEE JAE)

Yeongjun Yew(1889-1972) was a woman doctor and a socialist woman activis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established herself as a leftist leader after liberation. This paper studies the overall life and activities of Yeongjun Yew and intends to restore her historical status.

She came from a low-class background, but she grew into an elite woman through modern education and study-abroad. After returning to colonial Joseon, she actively carried out multiple activities based on the knowledge, experience, values, and connections gained through studying abroad. She achieved a fame as a new woman doctor by taking care of women and children. Moreover, she participated in Keun-Woo Association and the movement to establish women's medical college as a socialist woman activist.

Based on the reputation she has accumulated through medical activities and social movements, she quickly emerged as a leftist leader of women's movement after liberation. She was officially recognized as a leader of the female public, covering the left and right, and enthusiastically engaged in political activities in solidarity with left-wing male politicians, including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After defecting to North Korea in 1948,

she served as an executive in the North Korean politics.

Yeongjun Yew was a woman who overcame numerous limitations suppressed women with her own power and grew up to be a new woman doctor and a left-wing politician leading the female public. Her life and activities penetrate various aspects of Korean modern history, and thus have historical significance.

Key Words : Yeongjun Yew, New woman, Woman doctor, Socialist women's movement, Keun-Woo Association, Leftist, Founding Women's Association, Korean Women Alliance, North Korea, Woman politician

